

# 金壽恒 詩의 蘇軾 관련 典故 활용 양상

류 소 진\*

<目次>

I. 서론	1. ‘對牀夜雨’ 故事의 활용
II. 蘇軾 語句의 차용	2. ‘赤壁船遊’ 故事의 활용
1. 詩文 구절의 차용	3. ‘春夢婆’ 故事의 활용
2. 詩詞 어휘의 차용	4. 기타 유배 相關 故事의 활용
III. 蘇軾 相關 故事의 활용	IV. 결론

## I. 서론

北宋 문인 蘇軾(1036~1101)이 고려 중기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문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사회적 기풍 및 사상적 배경 등의 차이로 인해 각 시기별 혹은 각 유파별로 소식 추앙과 소식 문학 애호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조선 중기 무렵에는 性理學의 성행에 따라 소식을 추앙하고 그의 문학을 애호하는 열기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식었다. 이는 北宋 元祐(1086~1093) 연간에 程顥·程頤를 위시한 洛黨과 蘇軾·蘇轍을 위시한 蜀黨 간의 학문적 다툼에서 비롯되어 정치적 암투로까지 이어지게 된 당파간의 분쟁, 즉 洛蜀黨爭과 관련이 깊다. 이후 洛派를 계승한 程朱學派, 즉 성리학자들이 蜀派의 영수였던 소식을 매우 증오하게 되었는데,<sup>1)</sup> 이 영향으로 조선의 골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수 성리학자들 사이에도 소식의 위인과 학술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까지 비판하는 경향이 많았다.<sup>2)</sup>

金壽恒(1629~1689)은 조부 金尚憲과 아들 昌集·昌協·昌翁·昌業·昌緝·昌立 등 많은 명인을 배출한 당대 제일의 명문거족 출신이었다. 더욱이 그는 조선 仁祖朝부터 肅宗朝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쳐 영의정에 올랐을 정도로 명망이 매우 높았던, 17세기 후반 西人 및 老論 정권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다. 그는 성리학과 《朱子家禮》의 원칙을 고수하며 朱熹를 절대시한 宋時烈·宋浚吉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송시열은 주희가 성리학의 이론 체계를 완벽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은 필요하지 않으며, 점점 거세어지는 이단 사상을 조선 사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주희의 저술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朱子大全》의 용어를 해설한 사전인 《朱子大全劄疑》를 편찬했는데, 김수항은 이 작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sup>3)</sup>

김수항은 이처럼 조선의 골수 성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필자는 소식이 조선 문단에 끼친 영향에 대해 두루 고찰해 보던 중, 조선의 골수 성리학자로서 사상면에서는 소식과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김수항이 문학적으로는 소식의 시를 즐겨 읽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가 창작 방면에 있어서도 소식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을 암시하는 단서

- 1) 朱熹 編, 《二程外書》(四庫全書本) 卷11 〈時氏本拾遺〉 및 李燾, 《續資治通鑑長編》(四庫全書本) 卷393 〈哲宗元祐元年十二月壬寅〉 참조.
- 2) 오세현은 〈東坡 蘇軾을 바라보는 조선중기 사대부의 엇갈린 시선들 -道文論을 중심으로-〉(《韓國文化》 제71집, 2015, 127쪽)에서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한 安珦(1243~1306)의 사당 晦軒祠를 건립했던 周世鵬은 朱熹의 白鹿洞書院을 모범으로 한 白雲洞書院을 건립한 다음해에 《竹溪志》를 편찬하면서, 주자의 도학에 대한 열의를 후학들이 본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학의 폐해에 주된 원인이 되는 문장과 연관하여 소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전개했다”라 했다.
- 3) 정재훈, 〈17세기 후반 노론학자의 사상 -송시열·김수항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제13권, 1994), 58-68쪽 및 김순희, 〈《文谷集》의 서지학적 고찰〉(《書誌學研究》 제50집, 2011), 515쪽 참조.

를 발견하게 되었다.

소식이 만년에 陶淵明의 시에 화답하는 이른바 和陶詩를 짓자, 그 뒤 많은 문인들이 너도나도 화도시를 지음으로써 화도시 창작이 마침내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거니와,<sup>4)</sup> 김수항에게도 상당수의 화도시가 있는데<sup>5)</sup> 그 가운데 한 수인 <구림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사>에 차운하다(遷居鳩林, 次<移居>韻)><sup>6)</sup> 其二에서 그는 “이사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일, 소 씨 노인이 도 씨의 시에 화답하였네. 나는 이 두분의 뒤에 태어나, 때때로 또 그 시에 화답해 보네(移居古猶今, 蘇老和陶詩. 我生後二子, 有時且和之)”라고 했으니, 자신이 도연명의 시에 화답하고 나아가 소식의 시에 화답한 것이 바로 소식이 도연명의 시에 화답한 전례를 본뜬 것이라고 천명한 셈이다.

김수항은 또 <<전원으로 돌아오다>에 차운하다(次<歸園田居>韻)><sup>7)</sup>라는 화도시의 서문에서 “소동파는 혜주에 유배되었을 때 백수산과 불적암에서 노닐다 돌아와 도연명의 <전원으로 돌아오다>라는 시에 모두 차운했다. 지금 내가 우거하고 있는 곳에 국사암이 있는데 바로 도선의 유적이다. 이에 그 운을 사용하여 이 사실을 기록한다(東坡謫惠州, 遊白水山·佛跡巖而歸, 悉次淵明<歸園田>詩韻. 今余所寓, 有國師巖, 卽道洗遺跡也. 遂用其韻以志之)”라고 하기도 하고, <<곽 주부에게 화답하다>에 차운하여 아들들에게 보이다(次<和郭主簿>韻, 示兒輩)><sup>8)</sup>라는 화도시의 서문에서 “동파 노인은 유배지에서 아들 소파가 책을 낭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와 가락이 한아하고 아름다워서 젊을 때의 감회에 젖게 되었기에 도연명의 시 두 수에 화답했다. 지금 나 역시 유배지에서 밤중에 아들들이 책 읽는 소리를 들으니 감회가 일기에 그 시의 운자로 시를 지어서 아들들에게 보인

4) 袁行霈, <論和陶詩及文化意蘊>, 《中國社會科學》 第6期, 2003, 149쪽 참조.

5) 金壽恒의 《文谷集》 卷7에 총 24題 50首의 和陶詩가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6)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7.

7)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7.

8)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7.

다(坡翁在謫, 聞子過誦書, 聲節開美, 感念少時, 乃和淵明二篇云. 今余謫裏, 夜聞兒輩讀書聲, 亦有所感, 遂用其韻書示)”라고 하기도 했으니, 이것 역시 자신이 소식의 전례에 따라 도연명의 시에 화답했다고 밝힌 것이다.

조선 문인들은 여러 가지 동기에서 화도시를 지었는데, 김수항은 그 중에서 ‘소식 화도시 창작의 영향을 받은 경우’로 분류될 정도이다.<sup>9)</sup> 더구나 김수항의 화도시는 50수 모두 그가 유배 중일 때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의 화도시 창작이 유배지에서 도연명을 그리며 도연명의 시에 일일이 화답한 소식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10)</sup>

김수항은 또 소식의 〈밤에 앉아 아들 매와 함께 연구를 짓다(夜坐與邁聯句)〉<sup>11)</sup>라는 시에 차운하여 〈소동파의 〈밤에 앉아 아들 매와 함께 연구를 짓다〉의 운을 사용하여 아들들과 연구를 짓다(用東坡夜坐與邁聯句韻, 與兒輩聯句)〉<sup>12)</sup>라는 和蘇詩를 짓기도 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소식 시의 운자를 사용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聯句 형식이라는 화답시 창작 방식까지 본뜨고, 더 나아가 아들들에게 소식 시의 학습과 감상을 권유하는 효과까지 내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상의 예시를 통하여 김수항은 화소시는 말할 것도 없고 화도시 역시

9) 김보경은 〈韓國‘和陶詩’ 研究序說〉(《중국문학》 제66집, 2011, 227-229쪽)에서 조선 문인들의 화도시 창작 유형과 방식을 (1) 직접 陶淵明詩에 追和한 경우, (2) 蘇軾 和陶詩 창작의 영향을 받은 경우, (3) 조선 문인들 사이의 唱和 活動 가운데 생겨난 경우, (4) 이미 古人이 된 선배 시인 특히 조선 본토의 선배 시인의 和陶詩로부터 창작의 동기를 얻어 追和한 경우 등의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김수항의 화도시를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했다.

10) 안말숙은 〈치유로서의 문곡 유배시 연구〉(《인문학논총》 제36집, 2014, 158쪽)에서 김수항의 화도시 〈구림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사〉에 차운하다(遷居鳩林, 次移居韻)〉其二를 인용한 후, “제2구를 보면 ‘蘇老和陶詩’라고 하여 소식이 도잠의 시를 화작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자신의 처지를 귀양객 소식의 처지와 동일시하면서 和陶詩를 썼던 소식과 함께 은일시인 도잠을 기리며 작시한 것을 말함이다”라 했다.

11) 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87, 1125-1126쪽.

12)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3.

소식의 영향을 받아 짓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소식의 시문을 즐겨 읽고 이를 학습한 대다수의 고려·조선 문인이 화소시를 짓기도 하고 자신의 시에 소식과 관련된 典故를 많이 활용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식의 영향으로 화도시 겸 화소시<sup>13)</sup>를 짓기도 하고 직접 화소시를 짓기도 한 김수항 역시 시를 지을 때 소식과 관련된 전고를 많이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수항은 33세에 이미 大提學에 올랐을 정도로 문학적 재능도 인정받았던 인물로, 그의 문집인 《文谷集》에 시 1,032수와 문장 477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연구자들이 김수항을 문인보다는 관료나 정치인으로 여긴 탓에<sup>14)</sup>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sup>15)</sup> 더구나 김수항 시에 대한 소식의 영향을 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김수항의 소식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김수항 시의 소식 관련 전고 활용 양상을 분석해 보

- 
- 13)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김수항은 유배 중에 소식 화도시의 영향을 받아 소식을 그대로 본떠 도연명의 시에 화답했다. 김수항이 화도시에서 스스로 이에 대해 천명했을 뿐 아니라 그의 화도시 곳곳에 소식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한바, 그의 화도시는 단지 도연명의 시에만 화답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소식에게도 화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시는 비록 도연명의 詩韻을 사용하였지만 결국 도연명과 소식 모두에게 화답한 셈이므로 화도시 겸 화소시라고 할 수 있다.
- 14) 박명희, 〈文谷 金壽恒 시문에 投影된 月出山の 이미지〉(《호남문화연구》 제29집, 2001), 98쪽; 박명희, 〈文谷 金壽恒의 시문에 구현된 靈巖 유배지에서의 생활〉(《호남문화연구》 제43집, 2008), 64쪽; 유명석, 〈文谷 金壽恒 卽興詩의 樣相과 그 意義〉(《어문론총》 제90호, 2021), 35-38쪽 참조.
- 15)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김수항의 문학에 관한 기존 연구로 김수항이 유배지에서 쓴 시를 주제로 한 논문 몇 편[안말숙의 〈치유로서의 문곡 유배시 연구〉(《인문학논총》 제36집, 2014)와 박명희의 〈文谷 金壽恒의 靈巖 流配 중 시문학〉(《한국문학논총》 제31집, 2002)·〈文谷 金壽恒의 시문에 구현된 靈巖 유배지에서의 생활〉(《호남문화연구》 제43집, 2008)·〈文谷 金壽恒의 靈巖 유배 시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지속〉(《동방한문학》 제77집, 2018)]과 김수항의 和陶詩에 대한 논문 몇 편[안말숙의 〈金壽恒의 和陶詩 考察〉(《睡蓮語文論集》 제25집, 1999)과 유영봉의 〈文谷 金壽恒의 和陶詩 研究〉(《韓國人物史研究》 제25호, 2011)]이 있다.

고자 한다.

魏慶之는 전고 활용을 ‘意用事’와 ‘語用事’의 두 종류로 구분했고,<sup>16)</sup> 彭孫遜은 ‘用古人之事’·‘用古人之語’·‘用古人之字’의 세 종류로 구분했다.<sup>17)</sup> 그리고 范寧은 전고를 시문에 인용된 古代의 故事와 前人이 사용했던 말이라 규정하며 전고의 종류를 ‘事典’과 ‘語典’의 두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sup>18)</sup> 필자는 이전 비평가들의 이러한 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김수항의 소식 관련 전고 활용 양상을 소식의 語句를 차용한 경우와 소식 관련 故事를 활용한 경우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蘇軾 語句의 차용

### 1. 詩文 구절의 차용

김수항의 시 중에는 소식의 시나 문장에 사용된 구절을 차용하여 이를 약간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시구를 만든 예가 적지 않게 보인다.

다음은 소식의 7언구 중에서 두 글자를 바꾸어 새로운 시구를 만든 예

- 
- 16) 魏慶之의 《詩人玉屑》(王仲聞 點校, 北京: 中華書局, 2011, 208쪽) 卷7 〈用其意用其語〉에 “意用事が 있고 語用事が 있다(有意用事, 有語用事)”라고 했다.
- 17) 彭孫遜의 《金粟詞話》(唐圭璋 編, 《詞話叢編》, 臺北: 廣文書局, 1980, 710쪽)에 “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먼저 재료를 선택해야 하는바, 대체로 옛날 사람의 사적을 원용하려면 참신한 것을 택하고 진부한 것을 버리며, 옛날 사람의 말을 원용하려면 청신한 것을 택하고 평범한 것을 버리며, 옛날 사람의 글자를 원용하려면 신선한 것을 택하고 천속한 것을 버리나니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作詞必先選料, 大約用古人之事, 則取其新穎, 而去其陳因; 用古人之語, 則取其清雋, 而去其平實; 用古人之字, 則取有鮮麗, 而去其淺俗, 不可不知也)”라고 했다.
- 18) 范寧의 〈典詮叢書序〉(范之麟·吳庚舜 主編, 《全唐詩典故辭典》, 武漢: 湖北辭書出版社, 1989, 2쪽)에 “典故就是詩文中引用古代故事和前人用過的詞語, 有來歷和出處的, 一般分爲事典和語典”이라고 했다.

이다.

소식, <내가 해남으로 폼적되고 자유(蘇轍)가 뇌주로 폼적되었을 때 명을 받아 즉시 가는 길이었는데, 서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오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유가 아직 등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얼른 가서 따라잡아야겠기에 이 시를 지어 자유에게 보인다(吾謫海南, 子由雷州, 被命即行, 了不相知, 至梧, 乃聞其尚在藤也. 旦夕當追及, 作此詩示之)><sup>19)</sup>

莫嫌瓊雷隔雲海, 경주와 뇌주가 운해로 막혔다고 싫어하지 말게나  
聖恩尚許遙相望. 성은이 그래도 멀리서 서로 바라보는 걸 허락했으니.

김수항, <작은형님과 이필경(李翊相)이 수창한 시의 운자에 삼가 차운하다(敬次仲氏與李弼卿酬唱韻)><sup>20)</sup>

却羨瓊雷雲海隔, 오히려 부럽구나 경주와 뇌주가 운해로 막혔어도  
相望猶得信音頻, 서로 바라보며 소식을 자주 들을 수 있었으니.

소식의 이 시는 그가儋州(지금의 海南省 儋州市 中和鎮)로 유배 가는 도중에 지은 것이다. 소식의 유배령이 결정되기 한 달 전에 동생 소철의 유배령이 먼저 결정되었던바, 소철은 化州別駕雷州安置의 유배령을 받아 雷州로 가고 있었다. 뇌주는 지금의 광동성 남단에 있는 뇌주반도이니, 소식·소철 형제는 瓊州海峽을 사이에 두고 바다의 남쪽과 북쪽에서 서로 마주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소식과 소철의 유배지 사이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은 “성은이 그래도 멀리서 서로 바라보는 걸 허락했다(聖恩尚許遙相望)”며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위에 인용한 김수항의 시구는 전체 시 가운데 마지막 두 구절인 제7-8구이다. 이 시의 제3-4구에서 “형제가 한때 삼공의 반열에 올랐었는데, 영서와 호남에서 몇 년 동안 두 나그네가 되었네(兄弟一時三事列, 嶺湖連歲

19)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2243-2245쪽.

20)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3.

兩羈人)”라고 했으니 이 시가 김수항과 그의 작은형이 각각 호남과 영서에서 객지 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두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김수항이 보기에, 비록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있는 곳을 바라볼 수는 있었던 소식·소철 형제의 상황이 오히려 부러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莫嫌瓊雷隔雲海”라고 한 소식 시구 중의 ‘莫嫌’을 ‘却羨’으로 바꾸고 ‘瓊雷隔雲海’의 글자 순서를 약간 바꾸어 “却羨瓊雷雲海隔”이라고 함으로써, 소식 못지 않게 형제에 대한 그리움이 깊었음을 함축적이고 효율적으로 표현했다.

다음 시 역시 소식의 7언구 중에서 두 글자를 바꾸어 사용한 예이다.

소식, 〈혜승의 〈춘강만경도〉(惠崇〈春江晚景〉二首)〉<sup>21)</sup> 其一

萼蒿滿地蘆芽短, 물쭉은 천지에 가득하고 갈대 순은 뾰족하니  
正是河豚欲上時. 바야흐로 복어가 올라올 시절이라네.

김수항, 〈나일소(羅星漢)의 영전에 곡하다(哭羅一昭)〉<sup>22)</sup> 其六

春來相見問佳期, 봄이 오면 만나자며 좋은 때를 물으시기에  
期在河豚欲上時. 복어가 올라오는 때로 기약했지요.

소식의 이 시는 봄을 맞은 강촌의 풍경을 그린 승려 화가 혜승의 그림을 보고 지은 題畫詩이고, 김수항의 시는 봄이 오면 만나기로 했던 나성한이 세상을 떠나버려 결국 만날 수 없게 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이다. 김수항과 나성한이 만나기로 약속했던 좋은 때란 ‘물쭉은 천지에 가득하고 갈대 순은 뾰족한’ 때였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바닷물고기인 복어가 알을

21)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1401-1402쪽. 본고에 인용한 소식 시 가운데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卷1-30에 수록된 시의 번역은 《정본완역 소동파시집 1-4》(류종목 역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2019)를 참고하되 일부 자구를 수정했음을 밝혀 둔다.

22)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2.

낚기 위해 강으로 올라오는 때였다.

복어와 관련하여, 胡仔의 《漁隱叢話後集》에 “《倦游雜錄》에 이르기를 ‘복어는 강한 독이 있어 간과 알을 사람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늦봄에 버들개지가 날리면 이 물고기가 아주 살찌는데 長江·淮河 일대의 사람들은 계절의 별미라고 여기고 서로서로 보내 주는바, 그 고기를 저며서 물쭉·갈대순과 섞은 다음 끓여서 국을 만드는데 간혹 푹 익히지 않는 경우에도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했다(《倦游雜錄》云: ‘河豚魚, 有大毒, 肝與卵, 人食之必死. 暮春柳花飛, 此魚大肥, 江淮人爲時珍, 更相贈遺, 臠其肉, 雜萋蒿·荻芽, 淪而爲羹, 或不甚熟, 亦能害人’)”<sup>23)</sup>라고 설명해 놓았으니, 소식의 말한 ‘복어가 올라오는 때’는 바로 버들개지가 훑날리는 늦봄임을 알 수 있다. 김수항이 위의 시에서 소식의 “正是河豚欲上時”를 차용하여 “期在河豚欲上時”라고 한 것은, 자신들이 만나고자 한 좋은 때, 즉 늦봄을 보다 생동감 있고 형상적이면서도 해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었을 텐데 文友와 약속을 잡는 상황에서 이 시구가 얼른 떠오른 것은 김수항이 평소 소식의 이 시를 좋아하여 익히 외우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김수항은 소식의 시에 사용된 구절뿐만 아니라 소식의 문장에 사용된 구절도 차용하여 자신의 시구로 삼았다.

소식, 〈구양문충공(歐陽修) 제문(祭歐陽文忠公文)〉<sup>24)</sup>

아! 슬프도다. 선생께서 세상에 태어난 지 66년이 되었습니다. …… 이제 선생께서 돌아가셨으니, …… 비유하자면, 깊고 큰 못에 용이 없어지고 범이 떠나가면 괴이한 일들이 어지러이 생겨나서 미꾸라지와 드렁허리가 춤을 추고 여우와 살쥬기가 울부짖는 것과 같습니다.(嗚呼哀哉! 公之生於世, 六十有六年. …… 今公之沒也, …… 譬如深淵大澤, 龍亡而虎逝, 則變怪雜出, 舞鱣鱖而號狐狸.)

23) 胡仔, 《漁隱叢話後集》(廖德明 校點, 北京: 中華書局, 1976, 173쪽) 卷24 〈梅都官〉.

24)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1990, 1937쪽.

김수항, 〈청성부원군 김석주 공 이장 만사(淸城府院君金公錫胄遷葬挽)〉<sup>25)</sup>  
其二

龍亡虎逝至今驚, 용이 없어지고 호랑이가 떠나 지금까지 놀라나니  
霖雨丹青軫聖情. 장맛비에 단청 젖듯 촉촉이 성은을 입으셨네.

소식이 구양수 제문에서 구양수가 세상을 떠난 것을 “용이 없어지고 범이 떠나간(龍亡而虎逝)” 것에 비유했는데, 김수항은 김석주 공의 묘소를 이장할 때 지은 만사에서 바로 이 표현을 빌려와 “龍亡而虎逝”에서 ‘而’를 빼고 ‘至今驚’을 추가하여 “龍亡虎逝至今驚”이라는 새로운 7언구를 만들어 낸 것이다.

다음은 소식의 〈後赤壁賦〉 후반부와 이를 활용한 김수항의 시이다.

소식, 〈후적벽부〉<sup>26)</sup>

때는 한밤중이 다 되어 갈 무렵이라 사망을 둘러보니 온통 적막한데 마침 외로운 학 한 마리가 강을 가로지르며 동쪽에서 날아왔다. 날개는 수레바퀴 같고 검정색 치마에 흰 색 저고리를 입은 듯한데 끼룩끼룩 길게 울며 우리 배를 스쳐서 서쪽으로 날아갔다. 얼마 후 손님들은 가 버리고 나도 곧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한 도사가 나타나 날개옷을 나부끼며 임고정 아래를 지나가다가 나에게 읊하며 말했다. “적벽에서 노신 일은 즐거우셨소?” 그의 성명을 물었으나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아! 그래. 알겠소. 어젯밤에 울면서 내 앞으로 날아간 학이 바로 그대가 아니오?” 도사가 돌아보며 웃는 바람에 나도 놀라 꿈에서 깼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時夜將半, 四顧寂寥, 適有孤鶴, 橫江東來, 翹如車輪, 玄裳縞衣, 戛然長鳴, 掠予舟而西也. 須臾客去, 予亦就睡. 夢一道士, 羽衣翩躚, 過臨臯之下, 揖予而言曰: “赤壁之游樂乎?” 問其姓名, 俛而不答. “嗚呼噫嘻! 我知之矣. 疇昔之夜, 飛鳴而過我者, 非子也耶?” 道士顧笑, 予亦驚悟. 開戶視之, 不見其處.)

25)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5.

26) 《蘇軾文集》(孔凡禮 點校), 8쪽.

김수항, <구담봉으로 돌아와 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작은형님의 시에 차  
운하다(還到龜潭, 乘舟而下, 次仲氏韻)><sup>27)</sup>

仙夢乍驚玄鶴過, 신선의 꿈에서 별안간 깨니 검은학이 지나가고  
笛聲遙過彩雲浮. 피리 소리가 멀리 떠가는 오색 구름을 멈추게 하네.

소식의 前·後<赤壁賦>는 黃州 유배 시절에 그곳의 長江 가에 있는 ‘赤  
壁’이라는 절벽 아래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지은 두 편의 賦로, 여기에는  
그의 赤壁船遊 과정과 그 배경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는데, 김수항은  
구담봉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본 주위의 풍경에 매료되어 곧장 소  
식의 <후적벽부>를 떠올리고는 이 賦의 후반부 내용을 “仙夢乍驚玄鶴過”  
라는 한 구절에 압축해 넣었다. 그리고 그때 문득 들려온 피리 소리를 소  
식의 <전적벽부>에서 묘사한 통소 소리로 여기고 《列子·湯問篇》의 秦青  
고사<sup>28)</sup>를 빌려 그 통소 소리를 극도로 미화하기까지 했다. 김수항에게 있  
어서 소식의 적벽선유와 그때 지은 전·후<적벽부>가 얼마나 큰 동경과 흠  
모의 대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 2. 詩詞 어휘의 차용

김수항은 시를 지을 때 소식의 詩나 詞에 사용된 어휘를 차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 몇 가지 예를 보자.

27)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1.

28) 《列子·湯問篇》(嚴北溟·嚴捷 撰, 《列子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127쪽)에 “설담이 진청에게 노래를 배우다가 진청의 재주를 다 배우기도 전에 스스로 다 배웠다며 하직하고 돌아가려 했다. 진청이 그를 붙잡지 않고 성 밖의 큰길 가에서 송별연을 벌여 주며 박자에 맞추어 구슬프게 노래했더니 그 소리가 숲속의 나무를 흔들고 흘러가는 구름이 멈추어 서게 했다. 이에 설담이 사죄한 후 되돌아가기를 청하고 종신토록 다시는 감히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薛譚學謳于秦青, 未窮青之技, 自謂盡之, 遂辭歸. 秦青弗止, 餞于郊衢, 撫節悲歌, 聲振林木, 響遏行雲. 薛譚乃謝求反, 終身不敢言歸)”라는 고사가 기록되어 있다.

소식, 〈면지에서서의 옛날 일을 떠올린 자유(소철)의 시에 화답하다(和子由澗池懷舊)〉<sup>29)</sup>

人生到處知何似, 우리 인생 가는 곳마다 무엇 같을까?  
應似飛鴻踏雪泥. 기러기가 눈 덮인 진흙 위를 배회하는 것 같으니.

김수향, 〈또 앞 시의 운자를 사용하여 회포를 부치다(又用前韻寄懷)〉<sup>30)</sup>

千里壯心悲蹶驥, 천 리 달릴 장쾌한 마음 마구간에 누운 말을 슬퍼하니  
百年陳跡付泥鴻. 백 년의 발자취가 눈 덮인 진흙 위의 기러기 발자국 같네.

소식은 開封府試에 참여하기 위해 동생 소철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 개봉으로 들어가던 도중 澗池에 있는 한 절에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5년 뒤에 鳳翔府簽判으로 부임하기 위해 다시 면지를 거쳐 봉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소철이 〈면지에서서의 일을 떠올리며 자첨(소식) 형에게 부치다(懷澗池寄子瞻兄)〉라는 시를 지어 소식에게 보냈다. 위의 시는 소철이 보낸 이 시에 소식이 화답한 것이다. 눈이 내리면 기러기가 눈 덮인 진흙 위를 다니며 발자국을 남기는데, 이 기러기가 날아가 버리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그 자취를 알 수가 없다. 심지어 눈이 다 녹아서 기러기의 발자국마저 사라져 버리면, 사람들은 애초에 기러기가 땅에 내려왔었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누군가 이 세상에 머물다 떠나버리면 얼마간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오래지 않아 그 사람의 행방과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무심해져 버리곤 한다. 이것이 인지상정인바, 소식은 위의 시에서 바로 이러한 人生無常을 기러기가 눈 덮인 진흙 위에 발자국을 남긴 것에 비유함으로써 더욱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sup>31)</sup> 그리고 김수향은 이와 유사한 상

29)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96-97쪽.

30)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3.

31) 류종목 역주, 《정본완역 소동파시집 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165-166쪽 참조.

황에서 소식이 사용했던 ‘飛鴻’과 ‘雪泥’라는 어휘가 떠올라 이를 ‘泥鴻’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시어로 삼음으로써 함축미를 더했다.

앞 절에서 김수항이 “경주와 뇌주가 운해로 막혔다고 싫어하지 말게나. 성은이 그래도 멀리서 서로 바라보는 걸 허락했으니(莫嫌瓊雷隔雲海, 聖恩尚許遙相望)”<sup>32)</sup>라는 소식의 시구를 차용한 예를 살펴보았는데, 김수항은 〈아들 창흙이 벽파나루를 건너며 지은 시에 차운하다(次翁兒渡碧波韻)〉<sup>33)</sup>라는 시에서, 이 시구 중의 ‘瓊雷’라는 어휘를 차용함으로써 시의 함축성을 제고하기도 했다.

東風忽起瓊雷思, 동풍에 문득 경주와 뇌주의 그리움이 이는데  
薄暮聯翩旅雁聲. 해거름에 줄지어 나는 기러기 떼의 소리가 나네.

소식 시에 나온 ‘瓊雷’는 瓊州와 雷州의 합칭으로 각각 소식과 소철의 유배지를 가리키는바, 바다를 사이에 둔 이 두 지역이 이들 형제를 멀리 떼어 놓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수항이 위의 시를 지을 무렵 그 역시 유배 생활 중이었던바, ‘瓊雷思’라고 하며 소식 시의 ‘瓊雷’라는 어휘를 그대로 차용했으니, 이는 그가 평소에 소식 형제의 심정을 심분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심정 또한 그보다 못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김수항은 소식의 시에 사용된 어휘뿐 아니라 종종 소식의 詞에 사용된 어휘도 차용하여 자신의 시어로 사용했다.

소식, 〈수조가두——병진년 중추절에 새벽까지 즐겁게 술을 마시고 크게 취하여 이것을 짓고 아울러 자유를 그리워하다——(水調歌頭——丙辰年)〉

32) 〈내가 해남으로 폼적되고 자유(소철)가 뇌주로 폼적되었을 때 명을 받아 즉시 가는 길이었는데, 서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오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유가 아직 등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얼른 따라잡아야겠기에 이 시를 지어 자유에게 보인다(吾謫海南, 子由雷州, 被命即行, 了不相知, 至梧, 乃聞其尚在藤也. 旦夕當追及, 作此詩示之)〉[《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2244-2245쪽.]

33)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6.

秋, 歡飲達旦, 大醉, 作此篇, 兼懷子由——)》<sup>34)</sup>

明月幾時有,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그 얼마인지  
 把酒問青天. 술잔 잡고 푸른 하늘에 물어보네.  
 不知天上宮闕, 잘 모르겠구나, 천상의 궁궐은  
 今夕是何年. 오늘 이 밤이 어느 해쯤 되었는지.  
 我欲乘風歸去, 바람을 잡아타고 돌아가고 싶지만  
 又恐瓊樓玉宇, 한편으론 두렵네, 구슬로 지은 아름다운 그 집이  
 高處不勝寒. 너무 높아 추위를 못 이길까 봐.  
 起舞弄清影, 일어나서 춤추며 그림자를 희롱하구나  
 何似在人間. 이 어찌 속세에 사는 것 같으리?

김수항, 〈달밤에 유종원이 성루에 올라 지은 시에 차운하다(月夜, 次柳子厚登城樓韻)〉<sup>35)</sup>

玉宇遙懸蘇子夢, 먼 곳의 옥 전각에는 소동파의 꿈이 걸려 있었고  
 劍峯偏割柳州腸. 칼날 같은 산봉우리는 몹시도 유종원의 애를 끊었네.

김수항, 〈작은형님이 부친 시에 공손히 차운하다(敬次仲氏壽示韻)〉 其  
 —36)

清宵奈此月明何, 맑은 밤의 이리 밝은 달을 어찌할까요  
 唱斷蘇仙水調歌. 소씨 신선의 〈수조가두〉를 한없이 부릅니다.  
 玉宇瓊樓秋氣早, 옥 누각에 가을 기운이 일찍 찾아왔겠기에  
 孤臣歸夢此時多. 외로운 신하의 돌아가는 꿈이 이때를 맞아 잤답니다.

위에 인용한 김수항의 첫 번째 시 가운데 “玉宇遙懸蘇子夢”이라는 시구와 두 번째 시 가운데 “玉宇瓊樓秋氣早, 孤臣歸夢此時多”라는 시구는 모두 소식의 詞 〈水調歌頭〉(明月幾時有) 가운데, “나는 바람을 타고 돌아가

34) 鄒同慶·王宗堂 著, 《蘇軾詞編年校註》, 北京: 中華書局, 2002, 173-174쪽.

35)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3.

36)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4.

고 싶지만, 한편으론 또 구슬로 지은 멋진 그 집이, 높은 곳이라 추위를 못 이길까 두렵네(我欲乘風歸去, 又恐瓊樓玉宇, 高處不勝寒)”의 의미를 차용한 것으로, 특히 ‘玉宇’·‘玉宇瓊樓’라는 어휘를 그대로 활용했음을 볼 수 있다.

옛날 시인들은 시를 지을 때 시의 함축성과 해학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 자신의 才學도 과시하기 위해 前人들의 시나 문장 속의 구절 및 어휘를 즐겨 활용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수항은 시를 지을 때 종종 소식의 시나 문장에서 語句를 차용했다. 우선, 그는 소식의 7언구 가운데 두세 글자를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새로운 시구를 만들기도 하고, 賦나 산문 등 소식의 문장에 사용된 구절을 차용하여 적절히 변형함으로써 자신의 시구를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시를 지을 때 소식의 시나 詞에 사용된 어휘를 차용하기도 했다.

김수항은 주로 소식이 작품 속에서 묘사한 사물과 비슷한 사물을 묘사하는 경우 혹은 소식이 해당 작품을 창작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소식의 시나 문장에 사용된 구절을 자신의 시 속에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소식의 시문과 비슷한 의경을 창출하는 한편 함축미를 제고하기도 했다.

### Ⅲ. 蘇軾 관련 故事의 활용

#### 1. ‘對牀夜雨’ 故事의 활용

시인들은 시를 지을 때 고사를 활용하여 시의 함축성을 피하거나 참신한 미감을 창출하기도 한다. 김수항 역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지은 시가 많은데, 그 가운데 소식과 관련된 고사를 활용한 것이 상당히 많다. 먼

저 對牀夜雨 고사를 활용한 예를 보자.

소식·소철 형제는 한창 制科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젊은 시절에 韋應物의 시 〈진진과 원상에게 보이다(示全眞元常)〉를 읽다가 느낀 바가 있어 훗날 일찌감치 벼슬에서 물러나 침상을 마주하고 나란히 누워 밤비 소리를 들으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약속했다. 이것을 대상야우의 약속이라 부르는데, 이 일은 소철의 시 〈소요당에서 함께 자다(逍遙堂會宿二首)〉<sup>37)</sup>의 서문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나는 어릴 때 자침 형님을 따라 책을 읽었는데 하루도 서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장성하여 사방으로 벼슬길을 떠날 무렵에 위소주(위응물)의 시<sup>38)</sup>를 읽다가 ‘어찌 알겠는가 바람 불고 비 내리는 밤에, 다시 이렇게 마주 보고 잘 수 있을지?’라는 구절에 이르자, 슬픈 마음으로 그것에 감동하여, 이에 일찌감치 물러나 한적하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자고 약속했다. 그래서 자침 형님이 막 봉상부의 막부에서 관직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시를 남겨 이별하면서 말하기를 ‘소슬한 밤비 소리를 들을 날이 언제려나?’라 했다. 그 후에 자침 형님은 여항(杭州) 통판이 되었다가 다시 교서(密州) 태수로 옮겼고, 나는 회양과 제남에 오래 머무르고 있다 보니, 만나지 못한 지 7년이나 되었다. 회녕 10년 2월에 비로소 澶淵과 濮陽 일대에서 다시 만나 함께 徐州로 와서는 100여 일을 머물렀는데 그때 소요당에서 목게 되어, 지난날의 약속을 떠올리며 짧은 시 두 수를 지어 그것을 기록한다.(轍幼從子瞻讀書，未嘗一日相舍。既壯，將遊宦四方，讀韋蘇州詩，至“安知風雨夜，復此對牀眠”，惻然感之，乃相約早退，爲閑居之樂。故子瞻始爲鳳翔幕府，留詩爲別曰：“夜雨何時聽蕭瑟？”其後子瞻通守餘杭，復移守膠西，而轍滯留於淮陽·濟南，不見者七年。熙寧十年二月，始復會於澶濮之間，相從來徐，留百餘日，時宿於逍遙堂，追感前約，爲二小詩記之。)

其一

逍遙堂後千尋木，소요당 뒤편에 있는 천 길짜리 나무들이

37) 曾棗莊·馬德富 點校, 《欒城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158쪽.

38) 위응물의 시 〈진진과 원상에게 보이다(示全眞元常)〉를 가리킨다. 韋應物, 《韋蘇州集》(四庫全書本) 卷3 참조.

長送中宵風雨聲. 한밤중에 비바람 소리를 오래도록 보내오매  
 誤喜對牀尋舊約, 침상 마주하자던 옛날 약속 지켰다 착각하고 기뻐했네  
 不知漂泊在彭城. 여전히 팽성에서 떠도는 몸인 줄 모르고.

소철이 서문에서 말한 소식의 시는 <신축년 11월 19일에 정주의 서문 밖에서 자유(소철)와 헤어진 후, 말 위에서 시 한 편을 지어 그에게 부치다(辛丑十一月十九日, 既與子由別於鄭州西門之外, 馬上賦詩一篇寄之)><sup>39)</sup>로, 그 후반부가 다음과 같다.

亦知人生要有別, 우리 인생에 이별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但恐歲月去飄忽. 그저 세월이 훌쩍 가 버릴까 두렵구나.  
 寒燈相對記疇昔, 차가운 등불 아래 마주하고 옛날 일을 떠올리며  
 夜雨何時聽蕭瑟. 소슬한 밤비 소리를 들을 날이 언제려나?  
 君知此意不可忘, 이 마음을 잊을 수 없음을 자네도 알 터이니  
 慎勿苦愛高官職. 아무쪼록 높은 벼슬을 너무 좋아하지 말게나.

“君知此意不可忘”에서의 ‘此意’는 밤비 소리를 들으며 침상을 마주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고 싶은 마음을 의미한다. 소식은 自註에서 “일찍이 밤비 소리를 들으며 침상을 마주하자는 언약을 했었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嘗有夜雨對牀之言, 故云爾)”라고 했는데, 앞에서 인용한 소철 시의 서문과 其一 본문에서 “침상 마주하자던 옛날 약속 지켰다(對牀尋舊約)” 운운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소식은 소철의 이 시에 <자유가 곧 남도로 부임해 가려고 할 때 소요당에서 나와 함께 자면서 절구 두 수를 지었는데 읽어보니 거의 가슴에 담아 둘 수가 없을 지경이므로 그 시에 화답하여 나 자신의 근심을 풀었다. 내가 보기에 자유는 어릴 적부터 활달하고 타고난 자질이 도를 가까이해 온 데다 지인들의 양생과 장수의 비결도 터득했기에 나도 그 가운데 한두 가지를 살짝 얻어들은바, 지금 벼슬살이하느라 헤어져 지내는 날은 짧고

39)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95-96쪽.

훗날 은퇴하여 함께 지내는 날은 길다고 여겨 이것으로 나 자신의 근심을 풀고 아울러 이것으로 자유도 위로해준다(子由將赴南都, 與余會宿於逍遙堂, 作兩絕句, 讀之殆不可爲懷, 因和其詩以自解. 余觀子由, 自少曠達, 天資近道, 又得至人養生長年之訣, 而余亦竊聞其一二. 以爲今者宦游相別之日淺, 而異時退休相從之日長, 旣以自解, 且以慰子由云)><sup>40</sup>)라는 기다란 제목의 화답시를 지어, 함께 이별의 슬픔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살아 보자며 자신과 동생을 동시에 위로하기도 했다.

김수항은 자신의 시에서 소식·소철 형제의 이 대상야우 고사를 전고로 즐겨 사용했다. 먼저, <황주에서 큰형님을 뵈고 헤어진 후 지난날 부처 주셨던 시에 삼가 차운하여 그때로 돌아가서 지어 올리다(黃州拜會伯氏, 別後, 謹次前日寄示韻追呈)><sup>41</sup>) 其一을 보자.

鵲原別恨又秋天, 형님과 헤어져 한스러운데 또 가을이라  
 幾度看雲白日眠. 몇 번이나 흰 구름 보다가 대낮에 잠들었던가?  
 千載二蘇聞雨意, 천년 전에 두 소씨가 함께 빗소리 듣고자 했던 마음이어  
 黃岡今夕共團圓. 황주의 오늘 저녁은 둘이 함께 단란하군요.

김수항이 시제에서 말한 황주는 우리나라 황해도의 황주로 서울에서 의주로 가는 길목에 있다. 당시 김수항은 청나라 사신을 전송하기 위해 의주까지 가게 되었는데 도중에 큰형 金壽恒을 만났다. 제1-2구는 김수항이 큰형을 만나기 전의 상황을, 제3-4구는 큰형을 만난 날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제3구 “千載二蘇聞雨意”의 두 소씨는 소식·소철 형제를 가리키고, ‘함께 빗소리 듣고자 했던 마음’은 바로 대상야우의 약속을 뜻하는바, 자신의 형제가 황해도 황주에서 만난 일을 소식 형제가 송나라의 황주(지금의 湖北省 黃岡市 黃州區)에서 만난 일<sup>42</sup>)에 빗대어 그것만큼이나 기쁘다

40)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745-747쪽.

41)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3.

42) 소식은 元豐 3년(1080) 5월 말에 형의 가족을 데리고 황주로 가서 10일 동안 형과 함께 지내다가 6월 초에 자신의 유배지인 筠州(지금의 江西省 高安)로

고 한 것이다.

다음으로, <강릉 부사 이필경(李翊相)이 큰형님께 부친 시에 차운하다(次臨瀛府伯李弼卿寄伯氏韻)><sup>43</sup>라는 시를 보자.

中年非復別離時, 중년은 더 이상 헤어질 때가 아니라  
 失路分飛更可悲, 길을 잃고 헤어지니 더욱 슬퍼할 만하네.  
 溟海古城鳧鳥遠, 바닷가의 고성이라 오리 신발로 오기도 멀고  
 谷雲窮峽雁書遲, 곡운의 외진 골짜기라 기러기가 전하는 편지도 더디네.  
 晨星兩地空相望, 새벽별 비치는 두 곳에서 부질없이 서로 바라보나니  
 夜雨連床未易期, 밤비 속에 침상 붙이고 자는 것 기대하기 쉽지 않네.  
 最是瘴江搖落恨, 장기 낀 강가로 떨어진 게 가장 한스럽나니  
 屋梁殘夢陟岡詩, 대들보 아래 남은 꿈에 형님 그리는 시를 짓네.

김수항은 당시 큰형과 헤어져 있었는데,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편지로 소식을 전하는 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랬기에 새벽별 비치는 곳에서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 ‘밤비 속에 침상 붙이고 자는 것(夜雨連床)’은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여기에서도 김수항은 소식의 대상야우 고사를 활용함으로써 큰형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두터운 형제애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이밖에도,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연이어 찾아 오시어 동주의 복사에서 만났으니, 곤궁하고 적막한 중에도 많은 위로가 되었다. 이별에 임하여 슬픔을 견디기 어려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드린다(伯氏仲氏相繼來, 會於東州服舍, 窮寂之中慰懷多矣. 臨別, 不堪悵黯, 口占錄呈)><sup>44</sup>에서 “빛소리 함께 듣기로 한 소씨 집안의 약속이, 오늘에 이르러 어긋날까 걱정이군요. 비록 침상 맞대고 잠을 잔다고 한들, 이곳은 고향이

갔다. 施宿, 《東坡先生年譜·元豐三年庚申》(王水照 編, 《宋人所撰三蘇年譜彙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61쪽) 및 孔凡禮, 《蘇軾年譜》(北京: 中華書局, 2005, 482-483쪽) 참조.

43)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3.

44)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4.

아니니 어찌할까요. 어느 산엔들 낙토가 없으리오만, 세상의 그물이 걸핏하면 얽매네요(蘇家聽雨約, 耿耿至今違. 雖成對床眠, 奈此故鄉非. 何山無樂土, 世網動牽羈)”라고 한 것이나, <큰형님과 작은형님을 모시고 태화산을 유람하다가 사찰에 묵으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회포를 적다(陪伯氏仲氏, 遊太華宿僧院, 口占書懷)><sup>45)</sup>에서 “손 맞잡고 그윽한 산골짜기를 걷기에 가장 좋더니, 침상 마주하고 또 함께 절간에서 잠드네. 함께 빗소리 듣자던 소씨 집안 귀향의 기약 저버린 지 오래고, 영 땅 나무의 안개 속에 있던 이별한 뒤의 꿈이 깨었었네(聯袂最宜幽澗步, 對床還共上方眠. 歸期久負蘇家雨, 別夢曾驚郢樹煙)”라고 한 것 등 김수항이 자신의 시 속에 소식의 대상야우 고사를 활용한 예는 상당히 많다. 이렇듯 김수항은 자기 형제를 소식 형제에 빗대어 시를 지을 때 소식의 대상야우 고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형제를 향한 그리움과 두터운 형제애를 더욱 생동감 있고 함축성 있게 보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 2. ‘赤壁船遊’ 故事의 활용

소식이 황주로 유배 갔을 때, 黃州城 서쪽 산기슭에 赤壁이라 불리는 절벽이 있었는데, 그는 그곳을 매우 좋아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에 가서 노닐며 詩·詞·賦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을 짓곤 했다. 특히 1082년(壬戌年) 7월 16일 밤과 10월 15일 밤에 이 적벽 아래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전적벽부>와 <후적벽부>를 지은 일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전·후<적벽부>는 비단 소식의 문학 작품 중에서뿐만 아니라 중국문학 전체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인바, 조선으로도 전해져 많은 조선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적벽부>는 문학·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와 관련한 많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적벽부>의 영향으로 和順의 和順赤壁, 漢江의 蠶頭赤壁, 臨津江의 臨津赤壁,

45)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5.

邊山半島의 赤壁江 등 우리나라 곳곳에 적벽이라는 지명이 생겨나기도 했으며, 많은 조선 문인들이 여기에서 소식을 모방하여 赤壁船遊를 재연하기도 했다.

김수항의 경우, 그의 시에 종종 소식의 赤壁船遊 고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전·후<적벽부>에 나온 구절이나 어휘를 차용하여 자신의 시어를 만들기도 했다.

먼저, <현주 이공(李昭漢)이 7월 기망에 미호에서 배를 띄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계봉(高敬命)의 시에 차운하다(聞玄洲李公(昭漢)於七月既望泛舟漾湖, 次高霽峯韻)><sup>46)</sup>라는 시를 보자.

聞道清江泛酒船, 듣자하니 맑은 강에 술 실은 배 띄웠는데  
 新秋既望月明天. 초가을 기망의 달 밝은 날이었다지요.  
 舳頭想有吹簫客, 생각건대 뱃머리에 통소 부는 나그네 있었을 테고  
 夢裏應逢化鶴仙. 꿈속에서 분명 학이 된 신선을 만나셨겠지요.  
 赤壁玄洲前後事, 적벽의 소식과 현주에게 전후하여 있었던 일이요  
 甲申壬戌古今年. 임술년과 갑신년에 고금으로 있었던 일이군요.  
 一般況是俱遷謫, 더욱이 한가지로 둘 다 좌천당해 있을 때니  
 千載神交豈偶然. 천년 뒤의 정신적 교류가 어찌 우연이리오?

이 시는 7월 既望에 맞춰 漾湖에서 뱃놀이를 했다는 李昭漢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수항이 당시의 뱃놀이 장면을 상상하며 지은 것이다. 전반 네 구절에서 뱃놀이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대해 서술하는 한편, 당시 뱃놀이 장면에 대한 상상을 추가하여 묘사한바, 특히 제3-4구는 소식의 <적벽부> 속에 묘사되어 있는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후반 네 구절에서는 소식과 이소한의 뱃놀이가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둘 다 좌천당해 있을 때<sup>47)</sup>

46)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1.

47) 《인조실록》 45권[인조 22년 5월 6일 癸巳 3번째 기사]에 “수찬 南翎, 密山君 李濬, 동지중추 鄭良弼, 형조 참판 李昭漢을 금부에 내리고 徒年(徒刑에 의하여 처벌하는 햇수)으로 배소를 정하여 유배시키라고 명했다. 대개 이들이 西道에 사명을 받들고 나갔을 적에 역마를 함부로 탄 죄 때문인데, 금교찰방

이루어진 뱃놀이라고 공통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러한 ‘천년 뒤의 정신적 교류(千載神交)’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으로, <오래전에 동북의 적벽에 아주 빼어난 경계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직접 그곳에 가서 동과 신선의 놀이를 뒤이을 방법이 없었기에, 생각나는 대로 절구 한 수를 읊어 흥을 부치고, 아울러 운로 태수께 드려 화답을 청하다(久聞同福赤壁頗有勝槩, 無由致身其間以續坡仙之遊, 漫吟一絕寄興, 仍奉雲老使君要和)>48)라는 시를 보자.

水落山高赤壁秋, 물이 빠져 산이 높아진 적벽의 가을  
 福川何似舊黃州. 동북천이 얼마나 그 옛날의 황주와 닮았나?  
 騷人不及橫江鶴, 이 시인은 강을 가로지른 그 학을 좇아  
 飛度臨臯十月舟. 임고정에 있는 10월의 배로 날아서 건너가지 못하네.

김수항은 同福의 적벽이 빼어나다는 이야기를 진작에 들었지만, 당시 다른 지역에서 유배 중이라 직접 그곳으로 가서 적벽선유를 재연할 수 없었기에, 아쉬운 마음을 담아 이 시를 지었다. 특히 제3-4구는 “때는 한밤중이 다 되어 갈 무렵이라 사방을 둘러보니 온통 적막한데 마침 외로운 학 한 마리가 강을 가로지르며 동쪽에서 날아왔다. 날개는 수레바퀴 같고 검정색 치마에 흰 색 저고리를 입은 듯한데 끼룩끼룩 길게 울며 우리 배를 스쳐서 서쪽으로 날아갔다(時夜將半, 四顧寂寥, 適有孤鶴, 橫江東來. 翅如車輪, 玄裳縞衣, 戛然長鳴, 掠予舟而西也)”49)라고 한 소식의 <후적벽부>를 연상하게 하는바, 이것은 황주의 적벽 밑에서 유유자적한 소식처럼 동북천의 화순적벽에 가서 한 번 노닐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을 안타

許灌의 보고로 인해 이 명이 있었다(命修撰南詔·密山君濬·同知中樞鄭良弼·刑曹參判李昭漢下禁府, 徒年定配. 蓋俱以西路奉使時, 濫騎驛馬之罪, 因金郊察訪許灌啓聞, 有是命)라는 기록이 있는바[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id/wpa\\_12205006\\_003](https://sillok.history.go.kr/id/wpa_12205006_003)) 참조], 이소환이 당시에 유배 중이었기 때문에, 김수항이 이소환을 소식과 같은 유배객 처지라 여긴 것이다.

48)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4.

49) 《蘇軾文集》(孔凡禮 點校), 8쪽.

까워한 것이다.

이어서 <적벽에서 배를 띄우다(赤壁泛舟)><sup>50</sup>라는 시를 보자.

萬里黃州客, 만 리 밖에서 귀양 온 황주의 유배객이  
 三年赤壁秋, 세 해에 걸쳐 적벽의 가을을 맞이했네.  
 湘潭漁父問, 상담에서는 어부가 굴원에게 물었고  
 采石謫仙遊, 채석강에서는 적선이 노닐었네.  
 夢罷人疑鶴, 꿈에서 깨어 그 사람이 학이 아닌지 의심했는데  
 江空月在舟, 텅 빈 강에 달빛만 배에 내렸네.  
 涼風起天末, 쌀쌀한 바람이 하늘가에서 이니  
 先憶鳳凰樓, 가장 먼저 봉황루가 그리워지네.

이 시는 김수항이 소식의 적벽선유 장면을 떠올리며 지은 것으로, 제 1-2구는 소식이 황주로 유배 간 지 세 번째 되던 해에 적벽선유를 즐긴 후 전·후<적벽부>를 지었음을 밝힌 것이고 제5-6구는 <후적벽부> 끝부분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다.

김수항은 급기야 “소씨 신선의 가을 적벽을 시름 속에 바라보네(悵望蘇仙赤壁秋)”<sup>51</sup>라고 하여 적벽에서 노닌 소식을 신선이라 부르기까지 하며 그를 향한 지대한 흠모의 정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김수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시에 소식의 적벽선유 고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신선 같은 풍모를 지닌 소식을 향한 동경과 세속을 초월하고 싶은 욕망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 3. ‘春夢婆’ 故事의 활용

소식은 담주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현지인들과 허물없이 편하게 지냈

50)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2.

51) <단구동의 문을 나오며, 큰형님의 시에 차운하다(出丹丘洞門, 次伯氏韻)>[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1]

는데 이 때문에 이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많이 전해 온다. 다음은 그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일화이다.

동파 노인이 창화(儻州의 다른 이름)에 있을 때, 일찍이 논밭에서 큰 바가지를 메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노래 부른 것이 대개 <초편>이었다. 들밥을 내가던 일흔살 된 부인이 “내한 나리께서 옛날에 누렸던 부귀영화가 일장춘몽이었군요”라고 하자, 동파가 그럴듯하다고 여겼다. 마을 사람들이 이 노파를 ‘춘몽파’라고 불렀다. 동파가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혼자 걸어서 여자운 등 여러 여씨의 집에 갔다가 시를 지어서 “부 씨 노인의 풍류를 어찌 할 수 있으리? 흥안이 다 없어지고 실 같은 살쩍만 수두룩하네. 동쪽 집 여자가 복을 던져 매번 곤욕을 치르매, 부채를 바꾸어 춘몽파나 만나네”라고 했다.(東坡老人在昌化, 嘗負大瓢行歌於田畝間, 所歌者, 蓋〈哨遍〉也. 鮐婦年七十, 云: “內翰昔日富貴, 一場春夢.” 坡然之. 里人呼此媪爲‘春夢婆’. 坡一日被酒獨行, 遍至子雲諸黎之舍, 作詩<sup>52</sup>)云: “符老風流可奈何, 朱顏減盡鬢絲多. 投梭每困東鄰女, 換扇惟逢春夢婆.”)<sup>53</sup>

김수항은 자신의 시에 이 春夢婆 고사를 적지 않게 활용했다. 그 가운데 몇 수를 살펴보자.

4월 9일에 회포를 적다(四月初九日書懷)<sup>54</sup>)

行吟肯作楚臣悲, 거닐며 읊조린 초나라 신하의 슬픔을 어찌 일으키리?  
 偃息江潭亦聖涯, 강가에서 편히 쉬나니 이곳 역시 임금님 땅이네.  
 敢擬涪翁成易傳, 부주 노인이 《역전》 지은 일을 감히 본받아 보고  
 空追坡老和陶詩. 동파 노인이 도연명 시에 화답한 일을 괜히 좇아 보네.

52) 이 시는 <술에 취해 혼자 걸어서 자운·위·휘·선각 등 여씨 친구 네 명의 집을 두루 찾아가다(被酒獨行, 遍至子雲·威·徽·先覺四黎之舍, 三首)> 가운데 제3수이다.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2323쪽 참조.

53) 王宗稷 編撰, <東坡先生年譜·元符二年庚辰>(王水照 編, 《宋人所撰三蘇年譜彙刊》, 385쪽)

54)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3.

風波定力樵夫問, 풍파에도 끄떡없자 나무꾼이 물었고  
 春夢浮榮饑婦知, 봄꿈 같은 헛된 영화를 촌 여인이 알았네.  
 安分樂天吾不愧, 분수를 알고 낙천적으로 사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古人千載共心期, 천년 전의 옛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네.

유백규가 정사년 가을에 보낸 시에 뒤늦게 화답하다(追酬俞伯圭丁巳秋見寄之作)<sup>55)</sup> 其一

長樂疏鐘夢裏聲, 장락궁 드문 종소리 꿈속에 들리는데  
 五年湘浦隔秦城, 유배지의 오 년 세월에 서울은 멀어졌지.  
 村婆且喜論疇昔, 시골 노파는 소동파의 옛날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고  
 瀧吏多慙問姓名, 한되지는 창락룡 아전이 이름 묻는 걸 부끄러워했네.

강릉 부사 이필경이 부친 시에 차운한 광산 태수 이이중의 시에 차운하다(次光山李使君彝仲用臨瀛伯李弼卿寄贈之韻)<sup>56)</sup>

羈蹤一落海南陬, 나그네 발자취가 바다 남쪽 구석에 한번 떨어진 후로  
 栗里田園任廢疇, 울리의 전원을 못 쓰게 되도록 버려두었네.  
 坡老功名眞似夢, 동파 노인의 공명은 참으로 꿈과 같았고  
 楚鄉詞賦摠悲秋, 초나라의 사부는 모두 가을을 슬퍼했네.

첫 번째 시의 “봄꿈 같은 헛된 영화를 촌 여인이 알았다(春夢浮榮饑婦知)”, 두 번째 시의 “시골 노파는 소동파의 옛날 이야기 하는 걸 좋아했다(村婆且喜論疇昔)”, 세 번째 시의 “동파 노인의 공명은 참으로 꿈과 같았다(坡老功名眞似夢)”는 모두 담주 유배 시절에 소식이 길에서 만난 노파의 이야기, 즉 춘몽과 고사를 활용한 것으로, 김수항이 주로 인생무상에 대해 노래할 때 이를 활용한바, 이를 통해 해학성과 함축성을 높여 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55)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5.

56)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4.

## 4. 기타 유배 관련 故事의 활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식의 특정 사건과 관련된 잘 알려진 고사를 활용한 경우 이외에, 김수항은 소식의 유배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사를 활용함으로써 소식에게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고 소식을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소동과가 혜주에 있을 때 도연명의 시에 화운하고 말하기를, “백학봉 새 집이 완공되어 가을에서 옮겨 왔다. 장남 매가 나와 헤어진 지 3년이 되었는데, 여러 손자들을 데리고 만 리나 되는 먼 곳에서 왔다. 늙고 근심이 많은 뒤라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그는 그 시에서 “아침 일찍 똑똑, 누가 나의 오두막을 두드리나? 자손들이 멀리서 와, 웃고 얘기하느라 부산하구나. 가위질해 드리운 다박머리가, 이 하얀 바가지를 덮고 있구나. 삼 년이란 세월이 한바탕의 꿈, 이제야 다시 나를 보게 됐구나”<sup>57)</sup>라고 했다. 이제 내가 남쪽으로 유배를 온 것도 벌써 3년이 되었다. 성 서쪽 숙소에서 성 남쪽으로 거처를 옮기자마자 장남이 식구들을 데리고 만나러 왔는데, 일이 동파 노인과 딱 맞아떨어지니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마음가는 대로 시 한 수를 지어서 아들들에게 보인다(東坡在惠州和陶詩, 有云: “白鶴峯新居成, 自嘉祐寺遷入. 長子邁與余別三年矣, 挈携諸孫, 萬里遠至. 老朽憂患之餘, 不能無欣然.” 其詩曰: “旦朝丁丁, 誰款我廬. 子孫遠至, 笑語紛如. 翦髮垂髻, 覆此瓠壺. 三年一夢, 乃復見余.” 今余南遷, 亦已三年矣. 自城西僑舍, 纔移城南, 而長兒挈家來會, 事適與坡翁相符, 不可不志, 漫述一詩示兒)<sup>58)</sup>

坡翁謫惠州, 동파 노인이 혜주에 폄적되어 있을 때  
有子挈家至. 아들이 식구들을 데리고 갔었다네.  
三年乃復見, 삼 년 만에 비로소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欣然詩以志. 기뻐서 시로 이를 적어 보았네.

57) <도연명의 <계절의 변화>에 화운하다(和陶<時運>四首) 其四[《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2219쪽]

58)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4.

옛날 소 장공(소식)이 황주로 유배 갔고 유원성(劉安世)이 영외(영남 지방)로 쫓겨났는데, 나이가 모두 마흔일곱 살 때였다. 지금 내가 좌천당해 온 나이 역시 두 분과 딱 들어맞기에 생각나는 대로 써서 그것을 기록한다(昔蘇長公謫黃州, 劉元城竄嶺表, 年皆四十七. 今余遷謫之年亦與二公相符, 漫書以志之)<sup>59)</sup>

志節平生愧昔賢, 지조와 절개가 평생 옛 현인들께 부끄럽나니  
 明時遷謫亦徒然. 밝은 시절에나 좌천당했을 때나 다 부질없네.  
 同符坡老臨臯歲, 동파 노인이 임고정에 있을 때의 나이와 꼭 같고  
 恰值元城過嶺年. 원성공이 대유령을 넘어갔던 때와 같은 나이네.

9월 9일(九日)<sup>60)</sup>

二年瘴海作重陽, 두 해나 장기 어린 바닷가에서 중앙절을 쇠게 되니  
 正似坡翁滯越鄉.<sup>61)</sup> 동파 늙은이가 월 땅에 머문 것과 꼭 같네.

위에 예시한 세 수의 시에서 김수항은 각각 “일이 동파 노인과 딱 맞아 떨어지니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다(事適與坡翁相符, 不可不志)”, “동파 노인이 임고정에 있을 때의 나이와 꼭 같다(同符坡老臨臯歲)”, “동파 늙은이가 월 땅에 머문 것과 꼭 같다(正似坡翁滯越鄉)”와 같이, 유배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자신과 소식의 처지를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창협이 도성으로 돌아가기에 아들들이 주고받은 시의 운자를 사용하여 적어 주다(協也還洛, 用兒輩酬唱韻書贈)〉<sup>62)</sup>라는 시에 “아들은 소동파의 아

59)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3.

60)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4.

61) 김수항의 自註에 “소동파가 유배 중에 지은 시 〈9월 9일(重九)〉에 ‘삼 년을 장기 어린 바닷가에서 지내노라니, 월 땅의 높은 산이 실로 나의 집이라네. 높은 곳에 올라 중앙절을 보내노라니, 오랑캐 땅의 국화가 가을에도 아직 안 피었네’라고 읊었다(東坡謫中〈重九〉詩云: ‘三年瘴海上, 越嶠真我家, 登山作重九, 蠻菊秋未花’)”라고 했다. 《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2203쪽)에는 소식 시의 시제가 〈병자년 9월 9일(丙子重九二首)〉로 되어 있다.

62)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3.

들 과와 닮았고, 고을은 과도 치는 남해 같구나. 네가 뒤쫓아 와 오랜 나그네 생활 잊었었는데, 헤어지려니 먼 타향인 게 실감나는구나(子似東坡過, 州同南海潮. 追隨忘客久, 辭別覺鄉遙)”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소식이 남해 가의 고을 惠州와 담주로 유배 가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 蘇過가 아버지를 따라 유배지로 간 일과 연관지어서, 자신을 좇아 유배지로 온 아들 金昌協을 소식의 아들 소과에 비유한 것이다.

김수항은 유배 생활 중에 어린 아들을 잃기도 했는데, 이때도 역시 자신과 유사한 일을 겪었던 소식을 떠올렸다.

요절한 자식을 애도하다(병진년)(悼夭(丙辰))<sup>63</sup> 其一

羈旅失幼子, 객지 생활하던 중에 어린 아들을 잃었다고  
昔聞黃州蘇, 옛날에 황주의 소동파에게 들었는데  
今我遭此慟, 지금 내가 이 슬픔을 마주했으니  
異代還同符, 시대는 다르지만 이 역시 꼭 같은 일이네.

이 시는 유배 생활 중에 태어난 아들 金七龍이 요절하게 되었을 때 지은 애도시이다. 소식이 황주에 유배 중일 때 시첩 王朝雲이 막내아들 蘇慟을 낳았는데, 이듬해에 유배지를 汝州로 옮겨 가느라 서너 달 동안 쉬지 않고 무더운 배 안에서 지낸 탓에 병마가 엄습하여 이 아이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니와,<sup>64</sup> 김수항은 바로 소식의 이 일을 떠올리며 비슷한 처지에서 어린 아들을 잃었던 소식에게 동병상련의 정과 모종의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수항의 막내아들 金昌順 역시 유배지에서 요절했는데, 이때 김수항은 〈1월 6일은 어린 아들이 죽은 날로 잊으려 해도 이치를 가지고 슬픔을 풀 수 없는 바가 있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열 편의 절구를 읊었으니, 이 또

63)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3.

64) 류종목, 《팔방미인 소동파》, 서울: 신서원, 2005, 185-187쪽 참조.

한 동과 노인이 “통곡 한 번 하고 나서 남은 아픔 떨치려다”라고 한 것과 같은 뜻이다(正月初六, 卽幼子亡日也, 欲付之忘懷, 而自有不能理遣者, 率意口占十絕, 亦坡翁“一慟送餘傷”之意也)>65)라는 시를 지었다. 여기에서는 특히 소식이 막내아들 소문을 잃고 지은 시의 한 구절 “一慟送餘傷”66)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도 소식처럼 그렇게 슬픔을 이겨보겠노라 다짐하기까지 했다.

김수항 시의 소식 관련 전고 활용 양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김수항이 소식의 語句를 차용하거나 소식 관련 고사를 활용한 시 가운데 대부분이 그가 유배지에 있을 때 지은 것이라는 점, 김수항이 차용한 소식 시문 역시 대부분 소식이 유배지에 있을 때 지은 것이라는 점, 그리고 김수항의 소식 관련 전고 활용이 대부분 이별·좌절 등으로 인한 시련 혹은 유배 생활 중에 느낀 인생무상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수항은 소식 관련 고사를 활용하면서 자신을 소식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자주 보였던바, 이는 김수항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과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김수항의 정치적 역경을 살펴보자면, 그는 비록 당대 제일의 명문 거족 출신이자 서인 및 노론 정권의 대표적인 문신으로 명망이 상당히 높았지만, 계속해서 탄탄대로만 걸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조정은 당과 싸움이 극에 달한 정치적 난국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격랑 속에서 정무를 맡고 있던 김수항은 여러 차례 流配와 解配를 반복해 가며 정치적으로 큰 부침을 겪게 되었고, 결국 珍島에 유배되었다가 賜死되기에 이르렀다.67) 이렇게 정치적 부침을 겪은 김수항의 상황은, 新法派와 舊法派의

65)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卷3.

66) <작년 9월 27일에 황주에서 아들 둔이를 낳아 아명을 간아라고 했거니와 헌 걸차고 영특했는데 금년 7월 28일에 금릉에서 병사했기에 시를 두 수 지어서 애도한다(去歲九月二十七日, 在黃州, 生子遯, 小名幹兒, 頎然穎異. 至今年七月二十八日, 病亡於金陵, 作二詩哭之)>[《蘇軾詩集》(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1239-1240쪽]의 마지막 구절이다.

67) 안말숙, <치유로서의 문곡 유배시 연구>(《인문학논총》 제36집, 2014), 2-3

대답으로 인한 정치적 풍랑으로 거의 평생 동안 유배 생활과 지방관 생활을 하며 중국 전역을 떠돌아다녔던 소식과 비교해 보자면,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유사한 면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그랬기에 김수항은 유배지에 있을 때, 소식이 유배지에서 지은 시문에 더욱 공감할 수 있었고, 자신을 소식과 동일시하려는 경향까지 드러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김수항은 유배라는 정치적 역경 이외에 가족과 관련된 개인적 역경을 수차례 겪기도 했다. 그에게는 9남 1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 4남 1녀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의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애가 가득했을 것이다. 특히 그 중 두 아들은 자신의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난바, 이는 유배 중에 막내아들을 잃은 소식의 상황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에, 김수항으로 하여금 소식을 향한 동질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항은 이처럼 시련과 역경에 처했을 때 소식의 시문을 더욱 자주 읽고 또 자신의 시에 소식의 고사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을 소식과 동일시하기에 이르렀다.

‘동일시’는 실제로 문학치료의 효과 가운데 하나인바, 치유의 일차적 과정은 타자가 경험한 괴로운 트라우마에 독자가 자기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同類療法の 효과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sup>68)</sup> 이처럼 김수항도 소식과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중음악 작사가 김이나는 “마치 화자 자체가 내 이야기인 것처럼 .....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적이고 아픈, 비극적인 그런 표현에서 묘하게 위로와 공감을 받게 되더라고요. .... 저도 처음엔 위로를 준다고 함은 자고로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때로는 가사가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때, 그래서 힘들어하는 가사 속의 화자가 자신들과 다름없음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더 위로를 느끼

쪽 및 유영봉, 〈文谷 金壽恒의 和陶詩 研究〉(《韓國人物史研究》 제25호, 2011), 27쪽 참조.

68) 변학수, 《문학치료》, 서울: 학지사, 2007, 73쪽.

더라고요”<sup>69)</sup>라고 한 바 있다. 이 말처럼 실제로 사람들은 노래의 가사가 자신의 상황과 비슷할 때 그 가사의 내용에 더욱 깊이 공감하고 감정을 이입하게 되어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카타르시스와 비슷하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슬픔이 조금 누그러지기도 한다.<sup>70)</sup>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하게 되기도 한다. 그것은 아마도 나만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치 동지를 얻은 것처럼 마음의 위안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배로 인한 정치적 좌절과 지식들의 요절로 인한 개인적 시련 등 각종 역경에 처해 있던 김수항에게 소식의 시문은 바로 이러한 치유적 기능을 가진 좋은 처방이었다고 하겠다. 김수항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소식이 지은 시문을 읽는 행위를 통해 소식과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소식의 語句를 차용하거나 소식 관련 고사를 활용하여 시를 짓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소식과 동일시함으로써 시련과 좌절을 극복하고 아픔을 치유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sup>71)</sup> 이는 김수

69) 김이나, <위로>(《보통의 언어들》, 고양: 위즈덤하우스, 2020, 223쪽)

70) 2011년에 발표된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당시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는 힘든 20대를 보냈던 유재석이 자신과 비슷하게 힘들어 하고 있을 현재의 20대를 위로 하려는 의도를 갖고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로, 당시 소위 ‘삼포세대’라 불리던 20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 이유영·김종갑은 <대중가요를 통한 심미적 경험과 내면 치유 -유재석·이적의 <말하는 대로>를 중심으로>(《예술교육연구》 제16권 제4호, 2018, 285쪽)에서 “<무한도전>에서 공개되었던 유재석·이적의 <말하는 대로>는 유재석의 경험이 가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강화시킨다. 대중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노래에 담긴 그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감정이입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말하는 대로>의 진정성은 향유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음악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듣는 사람에게는 치유와 새로운 변화를 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노래를 통해서 수용자의 생각, 행동, 가치관 등이 변할 수 있으며, 내면적외상의 치유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71) 안말숙은 <치유로서의 문곡 유배시 연구>(《인문학논총》 제36집, 2014, 11

향이 유배의 고통을 극복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소식을 본받아 도연명의 시에 화답했던 것과는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72)</sup>

#### IV. 결론

조선 문인 김수항 시의 소식 관련 전고 활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그가 사상적으로 소식과 대립적인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 가운데 소식의 시나 문장에 사용되었던 語句를 차용하거나 소식 관련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새로운 시구를 만든 예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김수항은 시를 지을 때 종종 소식의 시나 문장에서 語句를 차용했다. 김수항은 주로 소식이 작품 속에서 묘사한 사물과 비슷한 사물을 묘사하는 경우 혹은 소식이 해당 작품을 창작할 때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소식 시문의 語句를 차용함으로써 소식의 시문과 비슷한 의경을 창출하는 한편 함축미와 해학미를 제고하기도 했다.

둘째, 김수항은 시를 지을 때 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사를 활용했

---

쪽)에서 “유배객의 고뇌와 번민을 잊기 위한 방편으로써 쓰게 된 김수항의 유배시를 보면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거나 이상적 경지를 도모하게 되고, 초월하면서 갈등을 치유하며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했다.

- 72) 김수항의 화도시 창작 동기와 관련하여, 안말숙은 “소식이 귀양지에서 和陶詩를 썼듯이 자신도 和陶詩를 지어 도감과 소식의 문학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면서 위안을 얻으며 초월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치유로서의 문곡 유배시 연구〉, 《인문학논총》 제36집, 2014, 22-23쪽)라고 했고, 유영봉은 “문곡은 이 암울한 유배기를 화도시 창작으로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으니, …… 문곡은 유배 기간 중에 늘 도감의 시를 가까이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리하여 숫구치는 詩心を 바탕으로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내용을 지닌 작품을 도감의 시에서 찾아낸 다음, 이를 차운하면서 유배의 외로움과 답답한 심회를 펼쳐냈던 것이다”(〈文谷 金壽恒의 和陶詩 研究〉, 《韓國人物史研究》 제25호, 2011, 4쪽 및 7쪽)라고 했다.

다. 대상야우 고사를 활용함으로써 형제를 향한 그리움과 형제간의 깊은 우애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적벽선유 고사를 활용함으로써 <적벽부>에 묘사된 신선 같은 소식의 풍모를 흠모하거나 세속을 초월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춘몽과 고사를 활용함으로써 부귀영화의 덧없음과 인생무상에 대한 감회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유배와 관련된 소식의 여러 가지 고사를 활용함으로써 소식을 향한 동병상련의 정을 표시함과 동시에 자신을 소식과 동일시하기도 했다.

김수항의 시에 보이는 소식 관련 전고는 대부분 창작 배경이나 창작 동기 등의 방면에서 소식의 시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수항이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소식의 시문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 소식의 시문을 매우 즐겨 읽고 또 좋아했음을 뜻한다.

김수항은 특히 유배로 인한 정치적 좌절이나 자식들의 요절로 인한 개인적 시련 등을 겪으며 각종 역경에 처했을 때, 소식의 시문을 더욱 가까이했으며 심지어 그의 시에서 직접 소식을 향한 흠모를 드러내거나 자신을 소식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던바, 그는 바로 이러한 동일시 과정을 통해 시련과 좌절을 극복하고 아픔을 치유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극도의 시련과 좌절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김수항에게, 소식은 바로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해 주는 진정한 벗이었고, 소식의 시문은 그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훌륭한 처방이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金壽恒, 《文谷集》(韓國文集叢刊本).

韋應物, 《韋蘇州集》(四庫全書本).

- 李燾, 《續資治通鑑長編》(四庫全書本).
- 朱熹 編, 《二程外書》(四庫全書本).
- 김이나, 《보통의 언어들》, 고양: 위즈덤하우스, 2020.
- 류종목, 《팔방미인 소동파》, 서울: 신서원, 2005.
- 류종목 역주, 《정본완역 소동파시집 1-4》,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2019.
- 변학수, 《문학치료》, 서울: 학지사, 2007.
-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1990.
- 孔凡禮, 《蘇軾年譜》, 北京: 中華書局, 2005.
- 唐圭璋 編, 《詞話叢編》, 臺北: 廣文書局, 1980.
- 范之麟·吳庚舜 主編, 《全唐詩典故辭典》, 武漢: 湖北辭書出版社, 1989.
- 嚴北溟·嚴捷 撰, 《列子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王文誥 輯註,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87.
- 王水照 編, 《宋人所撰三蘇年譜彙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 魏慶之 著, 王仲聞 點校, 《詩人玉屑》, 北京: 中華書局, 2011.
- 曾棗莊·馬德富 點校, 《欒城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鄒同慶·王宗堂 著, 《蘇軾詞編年校註》, 北京: 中華書局, 2002.
- 胡仔 纂集, 廖德明 校點, 《漁隱叢話後集》, 北京: 中華書局, 1976.
- 김보경, 〈韓國‘和陶詩’ 研究 序說〉, 《중국문학》 제66집, 2011.
- 김순희, 〈《文谷集》의 서지학적 고찰〉, 《書誌學研究》 제50집, 2011.
- 박명희, 〈文谷 金壽恒 시문에 投影된 月出山の 이미지〉, 《호남문화연구》 제29집, 2001.
- 박명희, 〈文谷 金壽恒의 靈巖 流配 중 시문학〉, 《한국문학논총》 제31집, 2002.
- 박명희, 〈文谷 金壽恒의 시문에 구현된 靈巖 유배지에서의 생활〉, 《호남 문화연구》 제43집, 2008.
- 박명희, 〈文谷 金壽恒의 靈巖 유배 시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지속〉, 《동방한문학》 제77집, 2018.

- 안말숙, 〈金壽恒의 和陶詩 考察〉, 《睡蓮語文論集》 제25집, 1999.
- 안말숙, 〈치유로서의 문곡 유배시 연구〉, 《인문학논총》 제36집, 2014.
- 오세현, 〈東坡 蘇軾을 바라보는 조선중기 사대부의 엇갈린 시선들 -道文論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제71집, 2015.
- 유명석, 〈文谷 金壽恒 卽興詩의 樣相과 그 意義〉, 《어문론총》 제90호, 2021.
- 유영봉, 〈文谷 金壽恒의 和陶詩 研究〉, 《韓國人物史研究》 제25호, 2011.
- 유영봉, 〈文谷 金壽恒의 詩文에 깃든 家族史[ I ]〉, 《漢文學報》 제29집, 2013.
- 이유영·김종갑, 〈대중가요를 통한 심미적 경험과 내면 치유 -유재석·이적의 〈말하는 대로〉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제16권 제4호, 2018.
- 정재훈, 〈17세기 후반 노론학자의 사상 -송시열·김수항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13권, 1994.
- 袁行霈, 〈論和陶詩及文化意蘊〉, 《中國社會科學》 第6期, 2003.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id/wpa\\_12205006\\_003](https://sillok.history.go.kr/id/wpa_12205006_003)).
-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Abstrac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spect of quoting Su Shi(蘇軾) in Kim Soohang(金壽恒)'s poetry, I found that even though he had a hostile relationship with Su Shi because he was ideologically inclined to absolutely regard Zhu Xi(朱熹), but he often borrowed the words and phrases used in Su Shi's literary works and he also frequently used some

episodes related to Su Shi when he wrote poems.

And most of them were very closely related to Su Shi's poetry in terms of creative background and creative motivation. Kim Soohang was able to use Su Shi's literary works in the right place because he usually enjoyed reading Su Shi's literary works and liked them so much. In particular, Kim Soohang enjoyed reading Su Shi's literature even more whenever he faced various hardships, such as political frustration caused by exile or personal trials caused by his children's premature death. He even showed his admiration for Su Shi in his poems, and he also showed a tendency to identify himself with Su Shi, I think that he tried to overcome trials and frustrations and heal the pain through this identification proces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Su Shi was a true friend who understood him more than anyone else to Kim Soohang, because Kim Soohang desperately needed warm comfort and someone to share his heart to overcome his hardships and frustrations, and Su Shi's literary works were excellent prescriptions for healing his pain.

Key Words : 蘇軾(Su Shi), 金壽恒(Kim Soohang), 語句의 차용(borrowing words and phrases), 故事의 활용(using episodes), 對牀夜雨 (sleeping side by side on rainy nights), 赤壁船遊(boating at Chibi), 春夢婆(old woman of spring dream)